

# 설 앞두고 ‘강진 반값여행’ 열기…접수 첫날 823팀 신청

문의 쇄도 매일 300팀 접수…설 명절 관광객·귀성객 붐빌 듯  
시행 3년째 갈수록 인기…관광객 소비·방문 인구 매년 급증

“누나~ 이번 설에 반값 신청하고 강진 내려갈게.” 설 명절을 앞두고 강진군의 ‘반값여행’이 올해 시작과 동시에 주목을 받고 있다.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반값여행 접수 첫 날에만 823팀이 신청하며 지난해에 이어 더욱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설 명절 기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이 동시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신청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전화와 문의의 개시판,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문의가 몰리면서 담당 부서는 하루 종일 문의 응대에 나설 정도다. 반값여행에 대한 높은 관심이 현장 반응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다는 평가다.

설 연휴를 앞두고 관광객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최근 강진의 핫플레이스로 주목받고 있는 분홍나무는 ‘분홍빛 노을이 머무는 곳’으로 알

려진 명소로, 노을이 질 무렵 방문하면 바다와 하늘이 어우러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 설명절 기간 귀성객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진이 ‘맛의 고장’으로 불리는 이유는 설 명절에 더욱 빛을 발한다. 강진의 겨울 별미로 알려진 회춘탕은 추운 날씨에 몸을 녹이기 좋은 음식으로 명절을 맞아 가족과 함께 찾는 지역 대표 먹거리로 꼽힌다.

반값여행을 통해 지급되는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은 여행 이후에도 다시 강진을 방문해 사용할 수 있으며, 강진군이 운영하는 농특산물 쇼핑몰 ‘초록믿음 강진’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초록믿음 강진은 지역 농가와 생산자, 판매자가 직접 상품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신선도가 강점으로 꼽힌다. 쌀귀리를 비롯해 수산물, 농축산물 등 다양한 강진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어, 명절 이후에도 지



강진군의 ‘반값여행’이 올해 시작과 동시에 주목을 받고 있다. 다산가족프로그램 백련사 다도체험 모습.

역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근 경기 둔화로 전반적인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강진군의 관광 소비는 비교적 뚜렷한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강진군 관광 소비는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2025년에는 전국 관광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소비 성장 흐름을 나타냈다. 방문 인구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강진군 방문 인구는 2023년 577만명, 2024년 578만명, 2025년 602만명으로 반값여행 추진 이후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설 명절과 같은 시기에는 해외여행이나 타 지역 방문 대신 반값여행을 활용해 고향 강진을 찾으려는 출향민 가족들의 방문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 부담은 줄이면서 가족이 함께 모여 명절을 보내는 ‘따뜻한 고향 여행’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설 명절을 맞아 반값여행을 계기로 고향을 찾는 발걸음이 늘어날길 바란다”라며 “부모님과 자녀, 가족이 함께 웃을 짓는 따뜻한 명절의 기억이 강진에서 쌓이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 나주시, 산림재난대응단 출범…산불·산사태 대응 강화

연중 상시 운영체제로 전환

산불과 산사태 등 각종 산림 재난에 연중 공백 없이 대응하기 위해 나주시가 현장 대응 인력을 통합한 산림재난대응단을 출범시키고 상시 대응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나주시는 지난달 30일 나주시민회관에서 산림재난대응단 발대식을 하고 대응단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산림재난대응단은 그동안 계절과 시기별로 분산 운영되던 단기 현장 대응 인력을 하나로 통합해 연중 상시 운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이를 통해 산림 재난 대응의 연속성과 현장 대응력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나주시 산림재난대응단은 총 56명으로 구성돼 오는 12월 15일까지 계절별 산림재난 발생 특성에 맞춘 현장 중심 대응 활동을 수행한다. 건조한 봄철과 가을철에는 산불 취약지역 순찰과 불법소각 계도 및 단속,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



지난달 30일 나주시민회관에서 산림재난대응단 발대식이 열렸다. <나주시 제공>

기 진화에 집중하고 여름철에는 산사태 취약지역 예찰과 응급조치를 통해 피해 예방에 나선다. 이와 함께 평상시에는 산림병해충 예찰과 방제 활동을 병행하는 등 연중 상시적인 산림 재난 대응과 산림 생태계 보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발대식에서는 산림재난대응단의 임무와 역할을 공유하고 현장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교육도 함께 했다. 산림재난대응단은 산불 취약지역 집중 순찰과

영농 부산물 및 쓰레기 불법소각 단속 등 봄철 산불 예방 활동에 우선 투입돼 현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임진광 나주시 공원녹지과장은 “산림 재난이 발생하면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단원의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책임감으로 현장 대응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장흥군, 1:1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군민 건강 지킨다

상·하반기 60명씩 모집

장흥군이 군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1:1 개인 맞춤형 건강증진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군민 건강 지키기에 나섰다.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플러스 체력단련실도 본격 가동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기초체력 검사와 건강상담을 통해 개인별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프로그램은 연간 총 120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상반기 60명과 하반기 60명으로 나누어 모집한다.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구분해 운영되며, 참여는 연 1회로 제한된다. 특히 건강플러스 체력단련실은 다양한 유산소 운동기구와 근력운동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전문 인력이 상주해 운동 지도와 안전 관리를 담당한다. 단순한 체력단련을 넘어 올바른 운동 방법 교육과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까지 함께 제공해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장흥군민들이 건강플러스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김성 장흥군수는 “운동은 최고의 예방의학이라는 말처럼, 군민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

으로도 군민 눈높이에 맞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담양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2월 한 달 설맞이 한시 상향

담양군이 지역 내 상품권 사용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담양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두 배로 늘린다. 담양군은 설 명절 이후 위축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2월 한 달간 담양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구매 한도 상향은 군민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에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

## 나주시, 혁신도시 노후가로등 4122개 교체

고효율 LED 조명 탄소 배출 감축

나주시가 빛가람 혁신도시의 노후 가로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전면 교체하며 시민의 야간 보행과 교통안전에 높이는 도시 기반 개선 성과를 거뒀다. 나주시는 야간 안전성 향상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해 사업비 27억원을 투입해 혁신도시 일원에 설치된 노후 가로등과 보행등 4122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비 8억원과 시비 8억원, 민간 투자 11억원으로 재원을 구성해 추진됐다. 민간 투자분은 선투자 후 전기요금 절감분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교체 완료 이후 5년간 무상 유지보수가 제공된다. 사업은 2025년 8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진행됐으며 2015년 혁신도시 조성 당시 설치된 10년 이상 사용된 노후 가로등 2956등과 보행등 1166등을 대상으로 교체가 이뤄졌다. 새로 설치된 LED 가로등은 기존 조명보다 전력 소모가 적고 수명이 긴 고효율 제품으로 광효율 156lm/W, 연색성 80Ra 이상, 고조파전류 10% 이하의 우수한 성능을 갖췄다. 이를 통해 밝고 균일한 휘도를 확보해 야간 보행자와 운전자 시인성을 크게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화순군 진화 헬기 확대 운영 산불 대비 만전

산불 예방·초기 대응 체계 강화

화순군이 봄철 산불 발생 위험에 대비해 산불 진화 헬기를 신규 배치하고 산불 예방과 초기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전남도에서 기존 9대 운영하던 임차 헬기를 2026년부터 10대로 확대 운영함에 따라 기존 나주·화순·영암 권역을 담당하던 운영체계를 화순·장흥 권역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산불 진화 헬기계류장을 화순군 한천 자연휴양림에 설치해 더욱 신속한 초동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헬기 배치를 통해 산불 발생 시 초동 대응은 물론, 불법소각 단속과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예방 활동도 병행할 수 있어 산림 재난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불진화 헬기는 Bell-505 소형 기종으로 탑승량은 850 l이며, 전체 면적의 73%가 산림으로 이루어진 화순군의 산악지형에 적합한 기동성이 뛰어난 헬기다. 헬기 운영을 위해 조종사 1명, 정비사 1명 등 총 2명이 배치돼, 봄철(2월 1일~5월 15일)과 가을철



화순군 산불진화 헬기.

(11월 1일~12월 15일) 산불조심 기간에 상시 대기하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출동할 예정이다. 김두환 화순군 산림과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연일 지속하면서 산불 위험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라며 “작은 부주의가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군민 여러분께서도 산불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 함평군 의료급여자 건강검진을 ‘전국 1위’

수검률 73%…전국 평균 크게 상회

함평군이 2025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을 수검률 73%를 기록하며 전국 1위를 차지했다. 함평군이 거둔 이번 성과는 전국 평균 41.5%, 전남 평균 51.8%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적극적인 건강검진 홍보 정책이 취약계층 건강관리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고령자와 만성질환자가 다수 포함된 건강 취약계층으로, 건강검진 참여율을 높이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대상이다. 함평군은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안내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끝에 전국 최고수준의 검진 참여 성과를 거뒀다. 보건소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운데 건강검진 미수검자를 전수 조사하고 반복 미수검자를 우선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전화 안내와 방문 상담을 실시했다.

특히 ▲검진 절차 ▲장소 ▲준비 사항 등을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춰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검진 참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수검을 유도했다. 또 읍면사무소·보건지소·진료소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지역 밀착형 안내를 추진하고, 고령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안내를 실시하는 등 현장 중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1:1 전화 안내 ▲현장 동력 ▲우편물 발송 ▲포스터·현수막 활용 홍보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한 결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수검률은 2024년 58.9%에서 2025년 73%로 크게 향상됐다. 심화섭 함평군 보건소장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계층인 만큼, 직접 찾아가는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군민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 장흥군, 장산방조제 개보수 사업비 32억 확보

덕산리 농경지 상습침수 방지 공사

장흥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2026년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에 ‘회진면 장산방조제’가 선정돼 총사업비 32억원을 확보했다. 사업지는 2024년 9월 집중호우로 대규모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한 회진면 덕산리 일원이다. 해당 지역은 바다와 인접해 만조 시 침수 피해가 더욱 확대되는 지형적 특성이 있으며, 1940년 준공돼 86년이 지난 노후 방조제로 재해 위험이 남아 있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꼽혀 왔다. 특히 2024년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누적 강수량 최고 372mm, 시간당 최대 74mm의 집중호우로 광범위한 농경지 침수가 발생하면서 방조제 개보수의 시급성이 더욱 두드러졌다.

장흥군은 농림축산식품부를 수차례 방문해 사업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이번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에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2026년 3월부터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 제방 보강(L=780m), 그라우팅 755공 시공, 배수갑문 교체 등을 포함한 세부 설계를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2026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공해 농경지 약 9ha에 대한 침수 피해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장산방조제 개보수사업을 통해 물리민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기후 변화에 대응해 농업 기반시설 정비와 재해 예방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